**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마6:26~34)**

1992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의 노후 대책’에 관한 강의를 듣고 ”노후대책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강사님은 “선교사 노후 대책은 마련된 것이 없다. 아직 선교 나가지도 않았으면서 노후대책 걱정을 하느냐”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야간기차를 타고 짐칸에 짐을 올리면서 주님이 심중에 생각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평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감동, 기도 응답의 감사에 울음이 멈춰지지 않아 휴대용 휴지가 모자라게 밤새 울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거론하는 저에게 첫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3개월의 국내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플란트 치료와 집안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도우심을 받으며 남동생의 사망 이후 25년의 숙제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문제들은 자매들에게 맡기고 출국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사역 방향과 인도를 기대하며 평안으로 소식 드립니다.

 2022. 5. 18. 김에스더 드림

**기도제목**

* H 부인 가정은 첫째딸이 친정에 와서 별거 중인데(B/S, GT,GC) 어린 두 자녀들이 있는데 이혼문제가 해결되고, 한류 팬인 셋째 딸이 대학졸업 후 첫 직장에 잘 적응하여, 처음 교제할 때 한국어를 매개로 성경을 읽으며 교제했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 한식 강사인 U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딸의 가정에 3월에 외손자가 3월에 태어났는데 (E/Af, AD)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유 질문하는 가정이 되도록
* N은 대학생일 때 만났는데 두 딸의 엄마가 되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실한 무슬림 친정어머니와 좋은 친구로만 교제하고 있는데
* A는 영접한 후에 주변의 사람들과 종교적 논쟁으로 위축된 것 같고 온라인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양육과 교제하는데 어렵습니다.
* 거주비자 신청을 위해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사역지의 물가 인상으로 집주인이 불필요한 조건 없이 월세 인상(70%)으로 재계약해서 이사하지 않도록.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제 사역지는 환율의 인상과 함께 물가인상폭이 월세는 100%, 공산품 등 식품은 달러 환율에 따라 매일 인상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음)
* 건강검진 결과는 이메일로 받기로 했고, 거제도 집은 제 짐만 대충 정리하고 거제도에서 19일 출발하여 5월 20일 새벽 출국의 모든 준비와 수화물도 안전하게 사역지까지 도착 기도 부탁드리며 동역자님들의 기도제목도 성령으로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